

과제구분	기본 Code : LS 0201	수행시기	전반기	연구기간	2000~(1년차)
연구과제명	쌀 지속적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			과제책임자	주영철
세부과제명	벼 내관수성 품종선발 및 관수피해 경감기술 개발				
색인용어	벼, 관수, 피해				
연구원별 임무					
구분	소속(연구실)	성명	전화번호	담당 임무	
세부과제책임자	경기도원, 작물연구과	임갑준	0331)229-5774	생육, 관수피해 조사	
공동연구자	"	한상욱	0331)229-5775	도복경감처리	

### 1. 연구 필요성

- 벼 생식생장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관수시 내관수성 품종을 선발하고 피해 경감기술을 개발코자 함.
  - 수잉기 관수처리로 통일형품종들은 일본형 품종들 보다 광합성, 암호흡, 근산화력이 높았고 에틸렌 생성량은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감수율도 낮았음('88. 강양순)
  - 생식생장기 관수 피해주의 수량보상은 고위절분얼이삭에 의존하였고 고위절분얼이삭이 9월 15일 출수되어 등숙적산온도가 690℃, 등숙일조시간이 210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쌀 236kg/10a를 보상하였음('88. 강양순)
  - 규산과 가리질비료 사용으로 감수분열기에 4일간 침관수 처리시 엽록소의 분해정도가 9.8~14.7% 억제되었고, 에틸렌 생성도 줄었으며, 근활력도 높아 도복지수도 낮아졌음('87. 영시)
  - 상시담수 관리한 논에서는 침관수됨에 따라 출수기가 늦어지고 엽신고사율도 높아져 간단관수답의 67%수량에 불과하였음('88. 연구와 지도)
  - 등숙기에 간단관개를 하고 MgSO<sub>4</sub>, K<sub>2</sub>HPO<sub>4</sub>등을 처리하면 등숙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('97. 호시)
  - 수잉기 4일간 관수처리에 의해 등숙율은 64.5~80.8% 였고, 감수율은 34~79%였음('88. 강양순)

## **2. 최종연구목표**

- 주요 벼 품종들의 관수시 내관수성 품종 선정
- 생식생장기 관수시 피해 경감기술 개발

## **3. 연차별 주요추진계획**

- 1년차
  - 내관수성 품종 선발
  - 관수피해 경감기술 개발
- 2년차 : 내관수성 품종 선발 및 경감기술 개발(년차간 변이)

## **4. 기대 및 파급효과**

- 경기지역 재배 주요 벼 품종중 관수저항성 품종 선정
- 벼 생식생장기 관수 피해 경감으로 수량 감소 최소화